

“국가균형발전 차기 정부 제1과제로 다뤄야”

윤당선인 지역균형발전특위 구성
광주시·전남도 전략 고심
수도권서 멀고 인구 감소 지역에
특단의 부흥책 마련 서둘러야



“송구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앞서 대선 패배에 대해 호남 지역민에게 사과는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설치되고 5대 과제 중 하나에 지역균형발전이 선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수도권 중심의 시혜적 성격의 과거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래 산업 연관 기관 우선 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공직자,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 수도권에서 먼 낙후지역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도는 각각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도권, 영남권 등에 버금가는 광역교통망 및 항만·공항 구축, 문화 및 편의 기반시설 마련, 지역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중요 과제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추에 낙후한 광주의 100년 미래가 걸린 만큼 대표도시 조성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국가 주도 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 정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의제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제1정책과제로 삼아 부총리급의 기청 국가균형발전부를 전담 부처로 신설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늦어진 감이 있다”며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힘을 펼 수

가 없다”고 진단했다.

광주시는 새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와 조광역 AI헬스케어 서비스플랫폼 조성, 지자체·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집중 지원 등을 요청하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등 대선공약을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위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기반으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는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 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 최근 들어 충청권에 국가 재정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집중되고 있다”며 “빈익빈부익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낙후도를 정확히 측정해 그에 맞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취지, 수단 등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비대위, 광주서 반성·성찰 다짐

5·18 민주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반성과 성찰을 다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주를 돌며 3·9 대선 패배를 사과하고, 호남에서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정말 송구하다. 죄인 된 심정이다”면서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쇄신의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72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서 대선 기간 약속해 온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께 많은 약속을 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보상 문제는 여야 간에 의견이 합치

된 사안이다”며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태진 비대위원은 “광주가 84%가 넘는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광주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 기득권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광주, 그리고 호남 분들에게 계속 지지를 부탁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 첫 적용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현장도 찾았다. 비대위 조오섭(복구갑) 대변인은 “비대위의 역할은 개혁 입법과 광주형일자리 시즌2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는 것과 지방선거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文·尹 오찬회동 무산 “실무 협의 계속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관련기사 4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간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 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애초 덕담을 나누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를 다짐하는 자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공식 의제가 있는 회담’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사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회동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무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19 일주일 이 최대 고비 ▶2면

불붙은 기름값... 서민·취약계층 '시름' ▶6면



KIA 뒤는 야구에 팬들 가슴이 된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국가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실습교육
*AID데이터 센터 멀티 GPU활용

AI 직무 기반
맞춤형 과정 운영

AI 기업 협력
프로젝트 운영

취·창업 지원
*시창업캠프 입주,
시·시제품제작 지원 등

나도 이제부터 AI 전문가!

인공지능 사관학교

3기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2.2.21.(월)-3.25.(금)
지원대상 전국 청년 미취업자(만 18세 ~ 만 39세 이하)
교육일정 2022. 3. ~ 2022. 12.(10개월)
교육특전

무료 교육 및
중식비 제공

기숙사비 및
교통비 지원

AI 관련 자격증
취득비 지원

교육생
취·창업지원

교육장소 인공지능 사관학교(광주광역시 內)
문의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062-610-39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AICN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